

칠십인역 헬라어의 Αὐτός(단수 주격 형태) 용법 연구 -칠십인역 창세기, 룻기, 전도서, 이사야, 마카비2서 분석-

김주한*

1. 문제 제기

고전 헬라어 학자인¹⁾ 구드윈(W. W. Goodwin)은 자신의 문법서에서 αὐτός의 용법을 다룬 후 다음과 같은 표현을 덧붙였다:²⁾

Αὐτός의 주격은 결코 인칭대명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인지되어야 한다.

이 설명은 간단하지만 향후 다양한 헬라어 문법서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³⁾ 이러한 문법적 일관성은 구드윈이 제시한 αὐτός의 용법의 설명이 원(原) 헬라어적 용법임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사항이 모든 헬라어 문법서들에서 언급되지는 않았다. 칠십인역 헬라어를 다룬 코니베어와 스톡(F. C. Conybeare and G. Stock)의 문법서가 한 예다.⁴⁾ 칠십인역 헬라어 문법서에서

* 총신대학교 강사, 성경언어/신약.

- 1) W. W. Goodwin, *A Greek Grammar* (London: St. Martin's, 1894), 4. 이곳에서 구드윈(Goodwin)은 자신의 저서가 아티 헬라어를 중심으로 한 헬라어 문법서임을 정확하게 밝힌다.
- 2) W. W. Goodwin, *A Greek Grammar*, 214(§ 989).
- 3) 이에 동의하는 고전 헬라어 문법서로는 H. W. Smyth and G. M. Messing, *Greek Gramm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가 있다. 또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들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헬라어 문법서인 J. H. Moulton and N. Turner, *A Grammar of NT Greek: Volume III Syntax* (Edinburgh: T. & T. Clark, 2005)도 동일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 외에 다양한 신약 성경 헬라어 문법서들도 이에 동의한다: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Broadman, 1934);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5); F. Blass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of the 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 W. Funk tra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C. F. D. Moule, *An Idiom Book of NT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M. Zerwick, *Biblical Greek*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3); W. D. Mounce, *Basics of Biblical Greek: Grammar*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9); 하성수와 강지숙, 『그리스어 문법』 (왜관: 분도출판사, 2005), 330(§ 1184); G. Machen, 『신약 헬라어』, 조운일 역 (서울: 솔로몬, 2004).
- 4) F. C. Conybeare and G. Stock, 강선남 편역, 『칠십인역 그리스어 문법』 (의정부: 한남 성서 연구소, 2006), *Grammar of Septuagint Greek: with Selected Readings, Vocabularies and Updated Indexe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 1995).

이 항목이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으나, 필자는 칠십인역 헬라어 문법에 있어 아직 αὐτός 용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본다. 이 지적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칠십인역 헬라어 문법에 대한 이해가 칠십인역 자체뿐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과의 관계 및 신약 성경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칠십인역 헬라어의 αὐτός의 용법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제2장에서는 αὐτός 용법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칠십인역 창세기에 나타나는 αὐτός의 용법들을 조사하고 그것의 용법을 히브리어 원문과 비교·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비교·분석의 결과가 과연 칠십인역 헬라어의 특성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칠십인역 가운데 문자적으로 번역된 본문들(예. LXX 룻기와 LXX 전도서), 의역 번역된 본문(예. LXX 이사야) 및 헬라어로 저작된 본문(예. ‘마카비2서’)을 분석하여 칠십인역에서의 αὐτός의 용법을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Αὐτός에 대한 문법적 설명

2.1. Αὐτός의 용법

2.1.1. Αὐτός의 3인칭 인칭대명사 용법

앞서 언급했듯이, 현행 헬라어 문법에서의 αὐτός의 용법에 대한 한 가지 합의점은 αὐτός가 사격들에서는 대명사로 사용되나 “3인칭 단수 주격 대명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⁵⁾ 물론 학자들 중에 αὐτός가 주격 대명사로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그들조차 이러한 용례는 제한된 본문에만 등장한다고 본다.⁶⁾ 다른 한편, 학자들은 종종 헬라어에서 3인칭 주격을 대신하는 표현들이 사용되었음을 지적한다(참조. 아래 2.2).⁷⁾

5) W. W. Goodwin, *A Greek Grammar*, 82(§ 389), 213-214(§ 989); H. W. Smyth and G. M. Messing, *Greek Grammar*, 229(§ 1194).

6) J. H. Moulton and N. Turner, *A Grammar*, 40; S. J. M. Zerwick, *Biblical Greek*, 64(§ 199). Zerwick의 경우, 그 예를 누가복음에 제한한다. 또한 F. Blass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150(§ 288[2]), 145-146(§ 277[3]) 및 H. S. J. Thackeray, *A Grammar of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Septuagint: Vol. 1 Introduction, Orthography and Accid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9), 190(§ 14[1])을 보라.

7) H. W. Smyth and G. M. Messing, *Greek Grammar*, 299(§ 1194); D. B. Wallace, *Greek Grammar*, 328-329.

2.1.2. Αὐτός의 특별 용법⁸⁾

메이첸(G. Machen)은 αὐτός의 특별 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⁹⁾

Αὐτός의 특별 용법. 3인칭 대명사인 αὐτός, ἡ, ὁ가 명사 대신 쓰이지 않고 명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위치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해석한다:

(1) 서술적 위치(αὐτός+관사+명사 또는 관사+명사+αὐτός) - 강의적 용법.

* 동사 속에 들어 있는 대명사를 강조하기도 한다.

(2) 관형적 위치(관사+αὐτός+명사 또는 관사+명사+관사+αὐτός) - “같은, 바로 그”의 뜻.

위의 특별 용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αὐτός가 형용사처럼 종종 명사와 함께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αὐτός의 대명사적 용법과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이 특별 용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사항은 αὐτός가 주격 형태로 문장의 동사의 행위자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점이다. 즉, 3인칭 단수 동사가 αὐτός를 남성 단수 주격 형태로 취할 때 이 αὐτός가 동사의 숨어 있는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서술적 위치에서 사용된 강의적 용법) 이것이 αὐτός가 주격의 3인칭 인칭대명사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게다가 몇몇 문법학자들이 αὐτός가 3인칭 인칭대명사 주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 3인칭 인칭대명사의 대용어들의 사용¹⁰⁾

2.2.1. Ἐκεῖνος

8) R. A. Young, *Intermediate New Testament Greek: A Linguistic and Exegetical Approach* (Nashville: Broadman, 1994), 72-73; H. W. Smyth and G. M. Messing, *Greek Grammar*, 302 (§ 1206); F. Blass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145-146 (§ 277), 150 (§ 288). 이들에 반해 이를 그냥 인칭대명사 내에서 다루는 문법서들도 있다. 이 경우 각 문법서들은 αὐτός의 용법에 분명히 인칭대명사적 용법이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H. J. Thackeray, *A Grammar*, 190 (§ 14[1]); J. H. Moulton and N. Turner, *A Grammar*; 37 이하. H. E. Dana and J. R. Mantey, *A Manual Grammar of the Greek NT* (N.p.: Macmillan, 1955), 134; S. J. M. Zerwick, *Biblical Greek*, 63-64 (§§ 198-200).

9) G. Machen, 『신약 헬라어』, 34.

10) H. W. Smyth and G. M. Messing, *Greek Grammar*, 299 (§ 1194): “3인칭 인칭대명사의 주격은 (부재하는 사람의 경우) ἐκεῖνος, ὅδε, (현존하는 사람의 경우) οὗτος, (문장의 서두에서) ὁ μέν... ὁ δε..., 및 대조에서는 αὐτός로 대체된다.” 참조. H. W. Smyth and G. M. Messing, *Greek Grammar*, 92 (§ 325[d]); D. B. Wallace, *Greek Grammar*, 328-329. 단, 월리스(Wallace)는 각 주 36에서 H. W. Smyth and G. M. Messing을 326.d로 인용하는데 이는 325.d로 수정되어야 한다.

지시대명사 ἐκεῖνος는 고전 헬라어로부터 신약 성경 헬라어에 이르기까지 3인칭 인칭대명사로 사용되었다.¹¹⁾ 특별히, ἐκεῖνος는 οὗτος와는 달리 원칭(遠稱)을 나타내기 에 나, 너, 우리가 아닌 제3자를 표현하는 데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ἐκεῖνος가 과연 3인칭 인칭대명사를 대신한 것인지 아니면 ἐκεῖνος의 일반적인 용법인 지시적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구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ἐκεῖνος가 등장할 경우 문맥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2.2. Οὗτος

Οὗτος는 위의 ἐκεῖνος보다 드물게 3인칭 인칭대명사로 사용되었다.¹²⁾ 이러한 현상은 어떤 측면에서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근(近)칭을 나타내는 οὗτος가 1 혹은 2인칭 인칭대명사보다 더 원(遠)칭을 나타내는 3인칭 인칭대명사들의 대용어로 사용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2.3. “관사+불변화사(예. ὁέ와 μέν)” 구문

“관사 + 불변화사(예. ὁέ와 μέν)”가 3인칭 인칭대명사의 대용어로 사용되는 것은 헬라어의 일반적인 용법이었다.¹³⁾ 특별히, 이는 관사의 명사적 용법에 근거를 둔 것이다.¹⁴⁾

3. 칠십인역 창세기에서의 표면적 분류를 따른 αὐτός(단수 주격 형태) 용법

칠십인역 헬라어에서의 αὐτός의 용법을 살펴보기 위해, 필자는 칠십인역 창

11) J. H. Moulton and N. Turner, *A Grammar*, 40; H. W. Smyth and G. M. Messing, *Greek Grammar*, 299(§ 1194); F. Blass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145(§ 277[3]). S. J. M. Zerwick, *Biblical Greek*, 64(§ 200).

12) F. Blass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145(§ 277[3]); D. B. Wallace, *Greek Grammar*, 328.

13) H. W. Smyth and G. M. Messing, *Greek Grammar*, 299(§ 1194); H. E. Dana and J. R. Mantey, *A Manual*, 134; J. H. Moulton and N. Turner, *A Grammar*, 36-37.

14) D. B. Wallace, *Greek Grammar*, 211-212. 추가적으로 언급해야 할 사항으로는 “관사+수사” 구문이 있다. 이 구문은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종종 대명사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구문은 이미 언급된 부분의 일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에(F. Blass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139[§ 265]) 3인칭 인칭대명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후에 살펴볼 칠십인역 창세기에서도 이 용례가 3회(창 38:28; 42:32; 44:28) 등장하는데 모든 경우에 이미 언급된 부분의 일부 혹은 양자 중 한쪽을 가리키는 기능을 한다.

세기에 등장하는 αὐτός(단수 주격형태)의 쓰임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칠십인역 창세기를 선택한 이유는 칠십인역 창세기가 번역적 측면에 있어서 대체로 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측면에 있어서 칠십인역 중 가장 오래되었고,¹⁵⁾ 또한 공식적 번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¹⁶⁾ 특별히, 공식적 번역으로서의 특징은 칠십인역 창세기가 향후 칠십인역 번역에 있어 기초 혹은 적어도 참조물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¹⁷⁾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본문들보다 칠십인역 창세기 분석은 가치가 있다.

3.1. 칠십인역 창세기에서의 αὐτός의 사용 통계

필자는 이 단락에서 칠십인역 창세기에서의 αὐτός의 쓰임에 대해서만 분석할 것이다. 즉, 히브리어 본문과의 비교는 당장 고려하지 않는다(이는 아래의 3.3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칠십인역 자체가 유대교에 있어서 하나의 독립된 성경으로 읽혀졌기 때문이다.¹⁸⁾

3.1.1. Αὐτός의 사용 통계

칠십인역 창세기에서 αὐτός 형태는 총 43회 등장한다(3:15, 16; 4:4; 13:1; 14:13, 15; 18:8; 19:30; 20:5; 34:19; 35:6; 36:1, 8; 38:12, 14; 39:6, 23; 41:11; 42:9, 38). 등장하는 장들을 참고해 보면 칠십인역 창세기 전반에 αὐτός가 고루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타 헬라이어 문헌들에서처럼 칠십인역 창세기 번역자들에게 있어 αὐτός가 친숙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3.1.2. 명사나 관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칠십인역 창세기에 등장하는 총 43개의 예들 중에서 명사나 관사와 함께 사용된 αὐτός의 특별 용법의 예들은 아래와 같다. 이 용례들은 αὐτός가 3인칭 단수 인칭대명사로 사용된 것과 확연하게 구별되기에 먼저 다룬다.

(1) 서술적 위치: “~자신(~self)”의 의미

15) J. M. Dines, *The Septuagint* (London; New York: T & T Clark, 2004), 120; K. H. Jobes and M. Silva, *Invitation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Press, 2000), 33, 114.

16) C. McCarthy, “Text and Versions: The Old Testament”, J. Barton ed., *The Biblical Word*, 2 vols., 1 Vol.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214-215.

17) 참조. J. Joosten, “The Prayer of Azariah (DanLXX 3): Sources and Origin”, J. Cook ed., *Septuagint and Reception* (Leiden: Brill, 2009), 5-16(5-7, 16); Dines, *The Septuagint*, 16.

18) J. W. Wevers, *Notes on the Greek Text of Genesis* (Atlanta: Scholar Press, 1993), xiv. 참조. E.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139.

명사와 관련하여 서술적 위치에 놓인 αὐτός의 용례는 총 11회 등장한다. 이러한 용례는 일정한 두 가지 유형들로 나타난다.

① “명사/대명사류+...+성 및 수가 일치하는 αὐτός+...”

이 유형에 해당되는 예가 10회 등장한다(13:1; 24:40; 35:6; 38:12; 44:10, 17; 46:1; 49:10; 50:14, 22).

② “명사/대명사류+...+καὶ αὐτός+...”

이 유형에 해당되는 예가 1회 등장한다(4:4).

(2) 한정적 위치: “같은(the same)”의 의미

없음.

3.1.3. 명사나 관사 없이 사용되는 경우

명사나 관사 없이 αὐτός가 단독으로 사용된 예들이 많다. 그러나 이 경우 히브리어 원본과의 비교-대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용법이 강조적 용법인지 대명사적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¹⁹⁾ 해석자의 주관에 전제로 하여 용법들을 구분해보면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1) 3인칭 인칭대명사로 사용된 경우

문맥상 3인칭 인칭대명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용례들이 총 14회 등장한다(3:15, 16; 14:15; 19:30; 20:5; 24:54; 31:21; 32:22; 34:19; 38:14; 41:11; 44:5; 49:13, 19, 20).

(2) 동사의 주어를 한정하여 “~ 자신(~self)”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

문맥상 동사의 주어를 한정하여 αὐτός의 강의적 용법을 나타내는 용례들이 있다(24:7; 27:31; 32:7, 19; 32:22, 32; 33:3; 39:6; 42:38; 44:20; 45:26). 이 경우 특정 어휘의 도움으로 그러한 특성을 분명히 지니는 예들도 있는 반면, 문맥 내에서 대조 등에 의해 강의적 의미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3) 양쪽 다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범주에 속한 예들은 위의 (1) 및 (2)에 나누어져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19) 물론 여기서 혹자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헬라어 자체의 용법상 αὐτός가 인칭대명사로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분명함을 이미 언급했기 때문이다.

(14:13; 18:18; 24:62; 39:23; 42:9). 그러나 문맥상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예들을 예시하기 위해 편의상 (3) 항목으로 구분해 놓는다.

(4) 특별한 용례

칠십인역 창세기에서 αὐτός가 강의적 용법이나 혹은 인칭대명사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두 번 나타난다. 이는 동일한 표현이기에 실제적으로는 1회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6:1, 8). 이 용례를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창세기 35:6을 참조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ἦλθεν δὲ Ἰακωβ εἰς Λουζα ἢ ἐστὶν ἐν γῆ Χαναν ἢ ἐστὶν Βαιθηλ. 필자의 견해로는 강조된 부분은 해석상 칠십인역 창세기 36:1, 8의 αὐτός 용례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히브리어 본문을 살펴보면 ‘ἦ’의 자리에는 히브리어 3인칭 인칭대명사 אָנֹכִי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창세기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3인칭 인칭대명사 단수형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אָנֹכִי가 사용된다).

3.1.4.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위의 용례들은 칠십인역 창세기에서 αὐτός가 강의적 용법 뿐만 아니라(3.1.2.[1] 및 3.1.3.[2]), 3인칭 인칭대명사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3.1.3.[1] 및 [3]). 또한 번역으로 인해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예외적인 용례도 등장함을 보았다(3.1.3.[4]).

그렇다면 칠십인역 창세기에서 αὐτός의 다양한 용례들의 기원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일부는 히브리어 본문과의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히브리어 본문과 비교-분석을 시도하기에 앞서 칠십인역 헬라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3인칭 인칭대명사의 대응어를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αὐτός와 3인칭 인칭대명사의 대응어들의 쓰임 관계를 살펴 볼 수 있고, 또한 칠십인역에서의 αὐτός의 용법들(특히, 3인칭 인칭대명사로서의 쓰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히브리어 본문과의 비교-분석 작업 시 그 번역 기법과 헬라어에서의 인칭대명사 표현의 선택 기준의 일면을 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2. 3인칭 인칭대명사의 대응어들의 사용(2.2 참조)

3인칭 인칭대명사의 대응어들로 사용되는 어휘들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이 대응어들의 용례들을 살펴봄에 있어 몇 가지 제한을 둔다. 첫째, αὐτός 연구에서 그랬듯이, 대응어들의 남성, 단수, 주격 형태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대응어

들이 명사(류)와 관련하여 한정적 위치나 서술적 위치에서 한정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왜냐하면 그 경우 이 대용어들은 3인칭 인칭대명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사의 경우 특별히 “관사+불변화사(예. ὅς와 μέν)” 구문을 살펴볼 것이다.

3.2.1. Ἐκεῖνος

칠십인역 창세기에서 ἐκεῖνος가 사용된 경우는 총 3회다(24:65; 37:19; 43:28). 그러나 모든 경우에 명사와 함께 쓰여 명사를 한정하므로 3인칭 인칭대명사로 사용된 경우가 없다.

3.2.2. Οὗτος

칠십인역 창세기에서 οὗτος는 총 34회 등장한다. 이 중 앞선 명사를 지칭하는 3인칭 대명사로서는 20회 사용된다(4:20, 21, 26; 5:29; 10:8, 9; 15:4a, 4b; 16:12; 19:37, 38; 24:65; 35:17; 38:11, 28; 42:6; 48:14, 18, 19a, 19b). 그러나 이 예들 중에서 οὗτος가 지시대명사의 기능을 상실하고 3인칭 인칭대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판단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²⁰⁾ 그리고 οὗτος가 특별히 근(近)칭을 가리킨다는 점, 즉 앞에 제시된 것을 재 언급하는 기능 때문에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결국 판단은 문맥에 따른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적어도 칠십인역 창세기 19:37 및 42:6은 확실히 3인칭 인칭대명사로 사용되었다.

3.2.3. “관사+불변화사(예. ὅς와 μέν)” 구문

칠십인역 창세기에서 “관사+불변화사(예. ὅς와 μέν)” 구문이 사용된 것은 총 22회다(4:9; 18:9; 22:1, 7, 11; 24:56; 27:18, 20, 32; 32:27, 33:5, 8, 15; 37:16; 38:17, 18; 39:8; 42:38; 44:10; 46:2; 47:30). 특징적인 것은 “ὁ μέν” 구문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ὁ ὅς” 구문은 거의 모든 예들에 있어 3인칭 인칭대명사로 사용되며 후속하는 동사인 εἶπεν의 주어가 된다. 창세기 39:8만 ἤθελεν과 함께 사용되었다.

3.2.4.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대용어들의 용례들은 그것들이 칠십인역 창세기에서 적어

20) D. B. Wallace, *Greek Grammar*, 328. 윌리스(Wallace)는 예로 요 5:6을 제시한다. 그는 τοῦτον ἰδὼν ὁ Ἰησοῦς를 “when Jesus saw him”으로 해석한다(예. NIV와 GNB 및 『새번역』). 그러나 문맥을 참조해 볼 때 τοῦτον은 5절의 τις ἄνθρωπος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기에 지시대명사로 해석될 수도 있다.

도 3인칭 인칭대명사로 사용되거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3.2.2). 따라서 이러한 용례들은, 한편으로 칠십인역 창세기의 αὐτός가 고전 헬라어와 마찬가지로 강조적 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3.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3.1.3[1] 단락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칠십인역 창세기에서는 αὐτός가 3인칭 인칭대명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3.3. 칠십인역 창세기의 αὐτός 용례들과 히브리어 본문 비교

앞선 단락에서 우리는 칠십인역 창세기에서 αὐτός가 3인칭 인칭대명사로 사용되는 독특한 용법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용법의 출처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단지 칠십인역 창세기의 용례들을 근거해 αὐτός의 고전적 용법(즉, 인칭대명사 주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용법)이 어느 일순간에 변화했을 것(즉, 인칭대명사 용법)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언어가 살아 있는 유기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αὐτός의 용법이 변화를 겪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²¹⁾ 그렇게 본다면, 칠십인역 창세기의 αὐτός의 용법(특히, 3인칭 주격 인칭대명사 용법) 역시 헬라어의 그러한 언어적 발전 및 퇴행의 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언어학적 현상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칠십인역 창세기가 본문의 일치성이 높은 히브리어 본문(“마소라 본문”)에서 번역된 사실을 알고 있다.²²⁾ 즉, 칠십인역 창세기에 등장하는 헬라어의 특징은 대본의 언어의 특성 혹은 번역적 특성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칠십인역 헬라어에서 αὐτός의 용법에 대해 보다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비록 완벽하게 성취되지는 못하겠지만,²³⁾ 히브리어 창세기 본문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αὐτός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히브리어 인칭대명사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3.3.1. 히브리어 인칭대명사 אָנֹכִי(3인칭 대명사 남성 단수형)의 용법 및 통계

히브리어의 3인칭 남성 단수 인칭대명사 독립형은 אָנֹכִי다. 우리는 앞서 칠십

21) 참조. 김방한, 『언어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2001), 171-193.

22) C. McCarthy, “Text and Versions”, 215; 김경래, “구약 성경 본문 전래 과정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1 (1997/8), 146.

23) 이는 칠십인역의 저본(Vorlage)과 현재 사용되는 히브리어 본문(Masoretic Text)이 일부 다르다는 여러 주장들에 의해서 기인한다. 따라서 칠십인역 헬라어에 대한 연구를 위해 히브리어 본문과 비교하는 것은 번역 기술을 분석해 내거나 히브리어 본문과의 차이점 및 일치점 등을 찾아 히브리어 본문이 정상적인 헬라어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대략을 살펴보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인역 헬라어를 언급하면서 αὐτός(3인칭 인칭대명사 남성 단수형)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αὐτός만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αὐτός의 용법

왈키와 오커너(B. K. Waltke and M. O'Connor)는 히브리어 대명사의 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²⁴⁾

첫째, “인칭대명사 독립형”으로서 그것들은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언급하는 선행사나 암시되어 있는 명사를 대신한다(§ 16.3.1[a]). 이는 모든 대명사들의 가장 일반적인 용법이다. 이 경우 대명사는 특별히 동격의 위치에서 진술된 명사나 대명사에 대한 약간의 강조를 나타내기도 한다(§ 16.3.1[b]).

둘째, 인칭대명사는 동사가 없는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특별히 3인칭 인칭대명사 독립형이 “계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16.3.3[a]).

셋째, 인칭대명사 독립형들은 접미 대명사들과 동격의 위치에 사용되어 강조적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16.3.4[a]).

넷째, 독립형 인칭대명사는 몇몇 불변화사들(הִנֵּה/הִנֵּהּ 및 הִנֵּהּ)과 함께 사용되어 그 명사적 요소들을 부각시키거나(§ 16.3.5[b]) 때로는 “또한”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16.3.5[b]).

다섯째, 후기 히브리어에서는 αὐτός가 인칭대명사 앞에 올 경우 특별한 강조의 의미 없이 “같은”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이 나타난다(§ 16.3.5[d]).

위의 다양한 용법들 중에서 현재 논의와 관련이 있는 용법은 첫째와 둘째 및 넷째다.

(2) הוּא(היא)의 용법과 통계

히브리어 창세기에서 הוּא(היא)는 총 148회 사용된다(2:11, 13, 14a, 14b, 19; 3:6, 12, 15, 16, 20; 4:4, 20, 21, 22, 26; 6:3; 7:2; 9:3, 18; 10:8, 9, 12, 21; 12:14, 18, 19; 13:1; 14:3, 7, 8, 12, 13, 15, 17, 18; 15:2, 4; 16:12; 17:12; 18:1, 8, 10; 19:20, 30, 33, 37, 38a,b; 20:2, 3, 5a,b,c,d, 7, 12, 13, 16; 21:13, 17; 22:20, 24; 23:2, 15, 19; 24:7, 15, 44, 54, 62, 65; 25:21, 29; 26:7, 9a,b; 27:31, 33, 38; 29:9, 12a,b, 25; 30:16, 33; 31:16, 20, 21, 43; 32:19a,b, 22, 23, 32; 33:3; 34:14, 19;

24)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Indiana: Eisenbrauns, 1990), 290-305(§§ 16.1-4). 참조 P. Juö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Part Three: Syntax, Paradigms and Indices*, 2 vol.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1), 538-546(§ 146).

35:6a,b, 19, 20, 27; 36:1, 8, 19, 24, 43; 37:2, 3, 27, 32; 38:11, 12, 14, 16, 21, 25; 39:3, 6, 22, 23; 41:11, 25, 26, 28, 31; 42:6a,b, 14, 27, 38; 43:12, 32; 44:5, 10, 14, 17, 20; 45:20, 26; 47:6; 48:7, 19a,b; 49:13, 19, 20; 50:14, 22).²⁵⁾ 이중 אלה가 אלה의 형태로 사용된 경우는 26회이고(3:16; 14:12, 13, 18; 16:12; 18:1, 8, 10; 20:3; 24:62; 25:29; 32:22, 32; 33:3; 34:19; 37:2; 38:12, 14; 41:11; 42:38; 44:5, 14; 48:14; 49:13, 19, 20), 나머지 125회는 단독으로 사용되었다. 이 예들은 하나의 인칭대명사 אלה(אלה)로 표현되지만 왈키와 오커너가 제시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용법이 칠십인역 창세기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며, 또한 헬라어의 쓰임에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비교 작업에서는 필자는 “히브리어 창세기 대 칠십인역 창세기”가 아닌 “칠십인역 창세기 대 히브리어 창세기”, 즉 칠십인역 창세기의 αὐτός의 용례를 중심으로(3.1.2 및 3.1.3) 하여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본 글의 목적은 칠십인역 창세기 분석을 통해 칠십인역 헬라어의 αὐτός 용법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3.3.2. <3.1.2> 및 <3.1.3>과 히브리어 본문 비교 및 분석

(1) <3.1.2>와의 비교(명사나 관사와 함께 사용된 αὐτός)

① 서술적 위치: “~자신(~self)”의 의미

칠십인역 창세기에서 αὐτός가 강의적 용법으로 사용된 부분은 총 10회이다(4:4; 13:1; 24:40; 35:6b; 38:12; 44:10, 17; 46:1; 49:10; 50:14). 이 중 49:10의 경우 헬라어 본문과 히브리어 본문이 크게 차이나 비교가 불가능하다. 한편, 두 곳에서 칠십인역 창세기는 히브리어 본문에는 대응어 אלה(אלה)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αὐτός를 첨가해 그와 관련된 명사를 강조하고 있는 예들이 발견된다(24:40; 46:1). 이러한 현상은 특별히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차이가 있으

25) 148개의 용례들에 대해 칠십인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즉, 3인칭 인칭대명사(αὐτός 등)로는 45회(3:15, 16; 4:4, 22; 10:21; 13:1; 14:13, 15; 18:1, 8; 19:30, 33; 20:5a, 5c; 22:20, 24; 23:2; 24:7, 15, 54, 62; 27:31; 29:9; 31:21; 32:19b, 23, 32; 33:3; 34:19; 35:6b; 38:12, 14; 39:6, 23; 41:11; 42:38; 44:5, 17, 20; 45:26; 49:13, 19, 20; 50:14, 22), 근칭 지시대명사(οὗτος 등)로는 34회(2:11, 13, 14a, 14b, 19; 3:12, 20; 4:20, 21; 10:8, 9, 12; 14:3, 7, 8, 17; 15:2, 4; 16:2; 19:37, 38b; 20:3; 23:15, 19; 24:44, 65; 36:24, 43; 38:11, 25; 42:6b, 14; 48:19a,b), 원칭 지시대명사(ἐκεῖνος 등)로는 2회(30:16; 32:23), 계사(εἰμί의 다양한 형태)로 49회(3:6; 4:2[γίνομαι]; 6:3; 9:18; 12:14, 18, 19; 14:18; 17:12; 18:10; 19:20; 20:2, 5b, 5d, 7, 12, 13, 16; 21:13, 17; 25:21; 26:7, 9a, 9b; 27:38; 29:12a, 12b, 25; 30:33; 31:16, 43; 34:14; 37:2, 3, 27, 32; 38:16, 21; 41:25, 26, 31; 42:6a, 27; 43:12, 32; 44:10, 14; 45:20; 47:6), “즉”(3인칭 인칭대명사/지시대명사 + εἰμί 동사 구조)의 의미로 9회(9:3; 35:6a, 19, 20, 27; 36:1, 8, 19; 48:7), 분사와 함께 사용되어 일반 동사로 번역된 경우 3회(31:20; 32:19a, 39:3), 수사와 함께 분할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1회(7:2) 및 번역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5회(19:38a; 25:29; 27:33; 39:22; 41:28).

나 칠십인역 본문에서는 일치하는 창세기 44:10과 44:17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② 한정적 위치: “같은(the same)”의 의미

없음.

(2) <3.1.3>과의 비교(명사나 관사 없이 사용된 αὐτός)

① 3인칭 인칭대명사로 사용되는 경우

칠십인역 창세기에서 αὐτός가 3인칭 인칭대명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총 14회 등장한다(3:15, 16; 14:15; 19:30; 20:5; 24:54; 31:21; 34:19; 38:14; 41:11; 44:5; 49:13, 19, 20). 이 때 모든 경우의 히브리어 본문에서 3인칭 인칭대명사로 사용된 אָנֹכִי가 등장한다. 이는 칠십인역 창세기가 충실한 문자적 번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이기에 나타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이는 초기 칠십인역 헬라어를 포함한 코이네 헬라어²⁶⁾에서 αὐτός가 비록 3인칭 인칭대명사로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지라도(서두에 제시된 αὐτός의 용법은 지극히 고전 헬라어에 초점을 둔 정의이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와의 접촉을 통해 αὐτός가 3인칭 인칭대명사로 사용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② 동사의 주어를 한정하여 “~자신(~self)”의 의미

칠십인역 창세기에서 αὐτός가 강조의 의미를 갖는 경우는 총 11회다(24:7; 27:31; 32:7, 19; 32:22, 32; 33:3; 39:6; 42:38; 44:20; 45:26). 히브리어 본문의 경우 인칭대명사와 더불어 한정사들이 함께 등장하여 인칭대명사를 강조해 주는 경우,²⁷⁾ 이것이 칠십인역 본문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예들도 발견된다(예. 27:31; 32:7; 참조. 45: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십인역 창세기에 등장하는 강조적 용법들 모두가 단순히 번역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

26) 이 어휘의 범위에 대해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구드윈(Goodwin)의 경우 이 어휘는 칠십인역과 신약 성경에 한정시키는 반면, 일반적으로 알렉산더 이후의 코이네 헬라어는 공통 방언(common dialect)이라고 부른다(W. W. Goodwin, *A Greek Grammar*, 3). 그러나 필자는 그의 의견보다 성경 헬라어 학자들이 나누는 구분에 따라 이 용어를 알렉산더 이후의 헬라어로, 그리고 나머지 둘을 각각 칠십인역 헬라어와 신약 성경 헬라어로 부르기로 하겠다. 그렇지만 기억할 점은 후자의 둘은 실바(M. Silva)가 말한 것처럼 ‘빠롤’(parole)의 측면에서 구분될 뿐 ‘랑그’(langue)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코이네 헬라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김주한, “신약 성경 헬라어의 역사”, 구자용 외 편집, 『성서의 세계』 [군포: 아람성경원어연구원, 2012], 352-353).

27)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300-301 (§ 16.3.5[b]).

하면 창세기 32:7이나 45:26 등의 예들 때문이다. 칠십인역 창세기 32:7의 경우(32:19와의 조화인지는 몰라도), 히브리어 본문 הַלֵּהּ מַגִּי 를 $\text{ἰδοὺ αὐτὸς ἔρχεται}$ 로 번역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은 부사 מַגִּי 이 동사 הַלֵּהּ 의 숨겨져 있는 주어와 함께 ἰδοὺ αὐτὸς 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물론 이것은 저본[Vorlage]의 차이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칠십인역 헬라어의 표현이 단순히 번역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즉, 저본의 문제가 LXX 창세기의 언어적 현상). 이와 더불어, 칠십인역 창세기 45:26의 경우($\text{καὶ αὐτὸς ἄρχει...}$ 참조. $\text{...וְכִי־הוּא מוֹשֵׁל}$)도 히브리어 본문의 וְכִי 를 생략하고 그 기능을 αὐτὸς 로 대신하는데,²⁸⁾ 이 또한 칠십인역 창세기의 언어적 경향을 보여주는 한 예라 말할 수 있다.

③ 양쪽 다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칠십인역 창세기에는 앞서 언급된 αὐτὸς 용법 ①과 ② 모두로 해석될 수 있는 예들이 5회 등장한다(14:13; 18:18; 24:62; 39:23; 41:9). 이는 칠십인역 창세기가 번역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히브리어의 인칭대명사 독립형이 본래적으로 갖는 강조의 의미와 대명사로서의 의미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²⁹⁾ 단, 칠십인역 창세기 42:9에서 αὐτὸς 의 상용어가 히브리어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3.1.2.[1].① 단락과 상관이 있지 않을까 의문이 든다. 즉, 칠십인역 창세기 번역자가 문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αὐτὸς 를 첨가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이 경우 칠십인역 창세기 42:9는 3.3.2.[2].① 및 ②에서의 3인칭 인칭대명사보다는 동사의 주어를 한정하는 기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다. 왜냐하면 적어도 칠십인역 창세기 32:7(②)에서 그와 유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④ 특별한 용례

칠십인역 창세기에서 “즉”으로 해석되는 αὐτὸς 의 특별한 예들이 2회 등장한다(36:1, 8; 참조. 35:6b). 헬라어에서는 “즉”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계사+명사”를 써서 표현하는데, 좋은 예가 칠십인역 창세기 35:6에서 등장한다($\text{ἐν γῆ Χανααν ἥ ἐστιν Βαιθηλ}$ [필자 강조]).³⁰⁾ 한편, 칠십인역 창

28) 특별히, לְהַלֵּהּ 뒤에서 הָרִבִּי עָבַד 의 형식으로 귀결절에서 “indeed then” 또는 “surely then”을 의미한다(F. Brown and S. Driver and C. Briggs,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coded with Strong's Concordance Numbers*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Inc., 2000], 214).

29) 참조.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292-293(§ 16.3.1[a,b]).

30) 해당 히브리어 본문은 $\text{וְהוּא בֵּית־אֵל בְּנֵי־בְרָךְ}$ 이다. 칠십인역 본문 ἥ ἐστιν 은 וְהוּא 의 번역인데, 이는 창세기에서 3인칭 인칭대명사는 성별의 구분없이 모두 자음자 וְהוּא 로 표기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Βαιθηλ 로 부가 설명되는 앞선 명사 γῆ Χανααν 이 여성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기 36:1 및 8절의 경우는 αὐτός ἐστίν...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 אָנֹכִי의 문자적 번역에서 기인한다.

3.3.3. <3.2.1-3>과 히브리어 본문과의 비교 및 분석

앞서 필자는 칠십인역 창세기에서 αὐτός가 사용된 곳의 히브리어 본문을 살펴해보았다. 이 분석을 통해 칠십인역 창세기의 αὐτός가 번역에서 기인하긴 했지만, 일부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음도 발견됐다(3.3.2.(1).① [24:40; 44:10, 46]; 3.3.2.(2).② [32:7; 45:26]; 3.3.2.(2).③ [42:9]).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칠십인역 창세기의 αὐτός 용법과 히브리어 본문과의 관계를 완전히 드러냈다고 평할 수 없다. 사실, 이 용법과 관련하여 두 본문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석해야 할 사항이 더 있다. 즉, 칠십인역 창세기에서 사용된 3인칭 인칭대명사 대용어들과 히브리어 본문과의 관련성이다. 왜냐하면 이 대용어들은 일반 헬라어에서 αὐτός를 대신에 사용되던 것들이었고, 따라서 이를 히브리어 본문과 비교하면 칠십인역의 αὐτός 용법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3.2.1>과의 비교: ἑκεῖνος
없음.

(2) <3.2.2>와의 비교: οὗτος

칠십인역 창세기에서 οὗτος가 사용된 예는 총 20회이다(4:20, 21, 26; 5:29; 10:8, 9; 15:4a,b; 16:12; 19:37, 38; 24:65; 35:17; 38:11, 28; 42:6; 48:14, 18, 19a,b). 이 예들 중 대부분의 경우 οὗτος가 אָנֹכִי와 상응하며(4:20, 21; 10:8, 9; 15:4b; 16:12; 19:37, 38; 24:65; 38:11; 42:6; 48:14; 48:19a,b), 몇몇의 경우는 히브리어 지시대명사인 אָנֹכִי와 상응하고(5:29; 15:4a; 35:17; 38:28; 48:6), 1회는 히브리어 본문에 상응어가 없이 등장한다(4:26). 이는 한편으로 헬라어의 οὗτος가 헬라어만으로도 완전한 기능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분명 히브리어의 אָנֹכִי에 대한 상응어로서 헬라어의 αὐτός의 대용어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3.3.2.(1).①과 3.3.2.(2).①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אָנֹכִי에 대한 칠십인역 창세기의 일반적인 번역어는 αὐτός이다(οὗτος의 상응어는 אָנֹכִי이다). 따라서 여기에 속한 예들은 칠십인역 창세기가 히브리어 본문에 충실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헬라어의 용법(αὐτός의 대용적 용법)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3.2.3>과의 비교: “ὁ ὅς” 구문

칠십인역 창세기에서 “ὁ δὲ + 동사” 구문(예. ὁ δὲ εἶπεν)은 총 22회 등장하는데(4:9; 18:9; 22:1, 7, 11; 24:56; 27:18, 20, 32; 32:27, 28; 33:5, 8, 15; 37:16; 38:17, 18; 39:8; 42:38; 44:10; 46:2; 47:30), 이는 히브리어 “접속사 ו + 동사의 미완료 3인칭 단수 형태” 구문(예. וַיֹּאמֶר)의 번역이다(히브리어 본문에 ו가 없는 경우는 32:27 및 33:15 뿐이다).³¹⁾ 다시 말해, 여기에 속한 예들은 헬라어 표현과 히브리어 표현이 거의 일치한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암시해준다. 첫째, 칠십인역 창세기 번역자가 히브리어의 본문에 대한 기계적 번역을 시도했다. 둘째, 비록 현상적으로는 완전히 일치할지라도, “ὁ δὲ” 구문을 사용한 것은 칠십인역 번역자의 헬라어 표현의 습관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왜 칠십인역 번역자가 이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는지, 즉 וַיֹּאמֶר을 καὶ [αὐτός] εἶπεν 혹은 εἶπεν δὲ [αὐτός]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도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은 데에는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또한 그가 더 헬라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려고 의도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없다. 다만, 히브리어 본문과의 비교 결과가 일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경우보다는 기계적 번역의 결과라는 데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4. 요약

위의 분석들(즉, 3.3.1-2)을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αὐτός의 용법은 히브리어의 וַיֹּאמֶר(ואמר)에 대한 문자적 번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십인역 창세기만으로도 분명한 의미가 살아나고 특별히 몇몇 부분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에 일치하는 상용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완전한 문장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저본의 문제가 아닌 경우) 적어도 칠십인역 창세기의 αὐτός 용법은 언어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자체 독립적인 요소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선 칠십인역 창세기만을 읽는다고 해도 그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해에 별 어려움이 없다는 점과 더불어 칠십인역 창세기 번역자가 αὐτός의 대응어들을 사용한 예들을 분석해 본 결과를 통해 지지를 얻는다(3.3.3을 참조하라).

4. 칠십인역 룯기, 전도서, 이사야, 마카비2서에서의 αὐτός(단수 주격 형태)의 용법

31) 한편, 18:9에는 ἀποκριθεὶς가 첨가되어 있다.

4.1. 문자적으로 번역된 부분: 칠십인역 룯기 및 전도서³²⁾

문자적으로 번역된 칠십인역 룯기 및 전도서는 αὐτός 사용과 히브리어 본문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는 칠십인역 창세기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칠십인역 오경이 후대 칠십인역 역자에게 표준이 되었거나 적어도 번역어 선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³³⁾ 이럴 경우 히브리어 본문과 독립된 αὐτός의 사용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락에서는 히브리어 본문과의 대조와 함께, 이미 논의된 칠십인역 창세기의 헬라어에 대한 논의를 근거하여 룯기와 전도서의 αὐτός와 그 대응어들의 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칠십인역 오경 이후에 칠십인역 헬라어에서 αὐτός 용법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조심스럽게 추적해 보고자 한다.

4.1.1. 칠십인역 룯기

(1) αὐτός의 사용

칠십인역 룯기에서의 αὐτός는 총 3회 등장한다(1:1; 3:2, 4). 그 사용은 칠십인역 창세기와 일치한다. 즉, αὐτός가 헬라어 고유의 용법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1:1; 3:2), 인칭대명사로도 사용된다(3:4). 비록 문맥이 중요할지라도, 특별히 αὐτός가 인칭대명사로 사용될 경우(3:4) 형식상 칠십인역 창세기와 유사하게 καὶ αὐτός의 문형을 보이는 점도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2) 대응어들의 경우

① ἑκεῖνος

없음. 칠십인역 창세기뿐 아니라 그 이후의 문서들에서도 ἑκεῖνος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고전 헬라어의 αὐτός 대응어 용법의 경향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서, 적어도 칠십인역 헬라어 내에서는 ἑκεῖνος가 αὐτός의 대응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οὗτος

칠십인역 룯기에서 οὗτος는 1회 등장하는데(4:7), 이는 3인칭 인칭대명사로

32) J. M. Dines, *The Septuagint*, 120. 칠십인역 중에서 문자적으로 번역된 성경은 룯기, 전도서, 아가이다. 이들 중 아가에는 αὐτός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유사한 예들로 αὐτή(3:6; 6:10; 8:5) 및 αὐτοί(6:5)가 등장하나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33) J. Joosten, "The Prayer", 5-7, 16.

사용된 예를 제공한다. 물론 지시대명사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문맥상 3인칭 인칭대명사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러한 경향은 3.3.3.(2)의 οὗτος에 대한 설명에서 살펴보았듯이 칠십인역 번역자가 헬라어적 관습을 유지하려던 상황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③ “ὁ δέ” 구문

칠십인역 룻기에서 “ὁ δέ” 구문은 1회 등장한다(4:4). 3.3.3.(3)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ὁ δέ” 구문이 히브리어의 특정 구문(וְאֵלֶּיךָ)의 기계적 번역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구문은 칠십인역 내의 번역체 문장이 이제 하나의 칠십인역 헬라어로 형성되었음을 드러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헬라어의 αὐτός 대용어와 잘 조화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참고. 룻 2:13; 3:7, 9b, 14, 16, 18. 이 구절들에는 “ἡ δέ” 구문이 등장하는데 이는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4.1.2. 칠십인역 전도서

(1) Αὐτός의 사용

칠십인역 전도서에는 αὐτός가 총 6회 등장하는데(1:6; 2:22; 3:9; 9:4, 15; 10:10). αὐτός의 사용이 칠십인역 창세기의 사용과 일치한다. 즉, 우리는 헬라어 고유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예들뿐만 아니라(2:22; 3:9; 9:4) 3인칭 인칭대명사로 사용되는 예들을 발견한다(1:6; 9:15; 10:10). 그리고 인칭대명사로 사용될 때, 비록 문맥이 중요하지만, 형식상 칠십인역 창세기와 유사하게 καὶ αὐτός의 문형을 가지고 있음도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10:10. 참조. 3.3.2.(2).① 및 ②).

(2) 대용어들의 사용

없음.

4.2. 의역으로 번역된 부분: 칠십인역 이사야

칠십인역에는 위에서 살펴본 문자적 번역과는 달리, 보다 원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헬라어의 표현들을 포괄적으로 차용한 번역들이 포함되어 있다. 칠십인역 읍기, 칠십인역 잠언, 칠십인역 이사야가 대표적인 예들이다.³⁴⁾ 따라서, 이 번역 성경들은 원문의 의미를 드러내면서도 그 어법과 표현이 보다 일반 헬라어와 가까워 일반 헬라어의 발전과 칠십인역 헬라어의 발

전의 과정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 특별히, 칠십인역 오경과 후기의 문자적 번역 성경들과의 비교는³⁵⁾ 헬라어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셉투아진탈리즘”, 즉 칠십인역 헬라어 문체라는 특수한 표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³⁶⁾

4.2.1. αὐτός의 사용

칠십인역 이사야에는 αὐτός가 총 23회 등장한다(3:14; 7:14; 8:13; 10:7; 19:16; 21:9; 25:11; 27:7; 30:32; 31:2; 34:17; 35:4; 45:18; 52:6; 53:5, 7, 11, 12a,b; 54:5; 63:9a,b, 10). 이 중 몇몇은 헬라어 고유의 용법(즉, 강의적 용법)과 일치함과 동시에(3:14; 7:14; 21:9; 27:7[3회]; 31:2³⁷⁾; 52:6³⁸⁾; 53:12a; 54:5; 63:9a), 히브리어 본문과 상관없이 3인칭 인칭대명사로도 사용됨을 보여준다(1:6; 9:15; 10:10; 45:18). 그리고 인칭대명사로 사용될 때, 비록 문맥이 중요하지만 형식상 칠십인역 창세기와 유사하게 καὶ αὐτός의 문형을 가지고 있음도 주의할 기을일 만하다(8:13; 10:17; 37:17; 53:5, 7, 12b. 참조. 3.3.2.(2).① 및 ②). 그러나 이와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몇몇 명사구도 존재한다(25:11; 63:10). 이러한 전반적인 현상은 칠십인역 이사야가 번역될 당시 자연스러운 헬라어

34) J. M. Dines, *The Septuagint*, 22, 120. 참조. K. H. Jobes and M. Silva, *Invitation*, 114.

35) 그러나 그 문자적 번역의 정도는 매우 차이가 나는데 오경은 문자적이면서도 자율성이 있는 반면, 룻기를 비롯한 앞부분에 언급된 책들은 완전한 “형식 일치 번역” 방식의 문자적이다. 그렇기에 비교를 통해 칠십인역 헬라어에 대한 정보를 일부 얻을 수 있다.

36) 신약 성경 헬라어에 대한 칠십인역 헬라어의 영향을 논의할 때 일반적으로 “셉투아진탈리즘”(Septuagintalism)과 “세미티즘”(Semitism)으로 구분해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Chang-Wook Jung(정창욱)은 칠십인역 헬라어의 영역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준다. 그에 의하면 “셉투아진탈리즘”이란 칠십인역에 나타나는 헬라어 표현으로서 셈족어의 영향을 받아 셈족어의 구문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헬라어 표현들을 가리킨다. 비록 칠십인역에 1-2회 정도만 등장하더라도 “셉투아진탈리즘”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그 표현들이 글로 살아남았기에 충분히 신약 성경 저자들, 특히 누가와 같이 칠십인역을 사용한 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세미티즘”은 순수한 “세미티즘”, 즉 셈족어의 특징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일반 헬라어의 용법에서도 벗어나고 또한 칠십인역 헬라어 용법에서도 벗어난 경우만을 가리킨다(Chang-Wook Jung[정창욱], *The Original Language of the Lukan Infancy Narrative* [London;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4], 54-58).

37) 히브리어 본문에서 계사가 생략된 형태의 명사 문장(מִן הַיּוֹם וְעַד הַיּוֹם)을 형용사적으로 해석하고 후속하는 접속사를 생략한 채 후속하는 동사(וְעַד הַיּוֹם)와 직접 주어-동사 형태로 번역함(αὐτός σοφός ἦγεν)으로, 히브리어에서 인칭대명사로 사용된 הוּא의 번역인 αὐτός가 독립적 형용사 σοφός를 한정하는 강의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38) 히브리어 הוּא는 계사로도 사용된다(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16.3.3[a]). 1인칭 인칭대명사와 함께 쓰인 사 52:6(וְעַד הַיּוֹם וְעַד הַיּוֹם)의 הוּא가 이 용법의 예에 해당한다. 그런데 칠십인역의 경우 인칭대명사 ἐγώ 뒤에 계사 εἰμί을 추가하고, 히브리어에서 계사로 사용된 הוּא를 문자적으로 αὐτός로 번역했다. 이 경우 αὐτός는 ὁ λαλῶν을 한정하는 강의적 용법으로 이해된다.

내에 이미 칠십인역 헬라어의 요소들, 적어도 αὐτός의 새로운 용법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다.

4.2.2. 대용어들의 사용

① Ἐκεῖνος
없음.

② Οὗτος

칠십인역 이사야에서 οὗτος는 6회 등장한다(9:14; 33:16, 22; 44:5; 45:13; 53:4). 이 예들로부터 우리는 οὗτος가 한편으로 지시대명사라는 기본적인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문맥상 3인칭 인칭대명사로도 해석될 수 있는 예들이 있음을 발견한다(9:14; 33:16, 22; 45:13; 53:4). 단, 히브리어 본문과 비교할 때, 칠십인역 이사야 44:5의 특수한 구문을 제외한다면 다른 부분들에서는 οὗτος가 **אֵלֶּה**의 번역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3.3.3.(2)와 4.1.1.(2).②에서 설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οὗτος의 쓰임이 칠십인역 창세기의 용법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③ “ὁ δέ” 구문

칠십인역 이사야에는 불확실하지만 히브리어 본문과 비교해 볼 때 “ὁ δέ” 구문이 3인칭 인칭대명사를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가 1회 등장한다(24:19). 특기할 점은, 칠십인역 이사야에서 다른 칠십인역 부분들과 비교되게 “ὁ δέ” 구문이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3인칭 인칭대명사의 표현은 4.2.1 및 4.2.2.②에서 언급한 αὐτός과 οὗτος로 표현된다.³⁹⁾

4.3. 원래 헬라어로 쓰인 부분: ‘마카비2서’

칠십인역에는 원래 헬라어로만 기록된 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들 중에 ‘마카비2서’도 있다.⁴⁰⁾ 원래 헬라어로 기록된 칠십인역의 책들은 칠십인역 헬

39) 이는 칠십인역 문체로 자리 잡은(?) ὁ δὲ εἶπεν의 구문 자체가 칠십인역 이사야에 등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개연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십인역 이사야가 문자역이 아니라 자유역이라는 점에서 칠십인역 이사야가 번역될 당시 그것이 번역체라서 피하려 했든 아니면 지극히 칠십인역 헬라어 문체라서 피하려 했든 번역자에게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았기에 일부러 피하려 했다는 가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반대로 이 어구가 일반 헬라어에서 온 것이라고 본다면 칠십인역 이사야 번역자는 보다 칠십인역 헬라어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어의 발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더 나아가 일반 헬라어의 변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언어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헌들이라 하겠다. 따라서 ‘마카비2서’를 분석해 보면 과연 칠십인역 헬라어 어법이 실재했고 상용화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받을 것이다. 단, ‘마카비2서’가 요약물이라는 점에서⁴¹⁾ 자연스러운 헬라어 문체가 살아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은 지적해야 한다.

4.3.1. αὐτός의 사용

‘마카비2서’에는 αὐτός가 총 14회 등장한다(1:12; 3:39; 4:1; 5:20; 7:37; 8:23; 10:19, 32; 11:7, 12; 12:24; 15:4, 37, 38). 이 중 αὐτός가 고전적 용법(즉, 강의적 용법)으로 사용된 예들(3:39; 5:20; 10:32; 11:7, 12; 12:24; 15:4, 37)과 더불어, 칠십인역 헬라어의 특성인 3인칭 인칭대명사로서 사용되는 예들이 등장한다(1:12; 4:1; 7:37; 8:23; 10:19; 15:38). 몇몇은 καὶ αὐτός의 형태로 등장한다(11:12; 15:38). 앞서 살펴본 칠십인역 책들에서 이 명사구가 일반적으로 인칭대명사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 ‘마카비2서’의 헬라어가 칠십인역 헬라어의 독특한 문체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여전히 문맥이 중요하기는 하다. 예를 들어, 마카비2서 15:37의 경우 비록 καὶ αὐτός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절대로 대명사로 해석할 수 없는 예다. 그리고 αὐτός가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들에서 3인칭 인칭대명사로 사용된 예들이 많다. 이는 ‘마카비2서’가 기록될 당시의 αὐτός가 사용된 방식과 그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4.3.2. 대용어들의 사용

① Ἐκεῖνος

없음.

② Οὗτος

‘마카비2서’에서 οὗτος는 총 8회 사용된다(5:18, 25; 6:31; 7:8, 40; 10:11; 13:5; 15:24). 비록 문맥에 따라 οὗτος가 지시대명사로 혹은 인칭대명사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마카비2서’의 예들은 οὗτος가 분명히 3인칭 인칭대명사의 대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역시 ‘마카비2서’의 헬라어가 일부 칠십인역 헬라어의 영향 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

40) J. M. Dines, *The Septuagint*, 19.

41) J. A. Goldstein, *II Maccabe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84), 4; J. M. Dines, *The Septuagint*, 19.

헬라어의 αὐτός의 대응어로서 주로 사용되던 ἐκεῖνος가 인칭대명사로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지지받는다.

③ “ὁ δέ” 구문

‘마카비2서’에서 “ὁ δέ” 구문은 8회 등장한다(3:7; 4:24, 34; 6:19, 23; 7:8, 16; 8:9). 모든 예들이 “ὁ δέ” 구문이 3인칭 인칭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일차적으로 고전 헬라어에서의 용법이 그대로 적용된 것일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칠십인역에서의 히브리어 특정 구문에 대한 기계적 번역의 요소, 즉 칠십인역 헬라어의 용례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칠십인역 헬라어의 용례라 단정 지을 수 없는 요소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3.3.3.(3)과 4.1.1.(2).③ 및 4.2.2.③에서의 용례들은 극히 몇 개만을 제외하고 “ὁ δέ+동사” 구문이 등장하는 반면, ‘마카비2서’의 경우 “ὁ δέ+분사+동사” 구문이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마카비2서’의 이 대응어의 사용은 보다 일반 헬라어의 특징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⁴²⁾

5.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제안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칠십인역 헬라어에서 αὐτός는 헬라어 고유의 특별 용법(즉, 강의적 용법)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칠십인역 창세기 이래로 칠십인역 번역 초기에는 αὐτός가 3인칭 인칭대명사로 사용되는 종종 용례가 등장하며, 후기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초기 용례들의 경우 주로 καὶ αὐτός의 형태나 간혹 αὐτός δέ의 형태를 취한다.⁴³⁾

둘째, 대응어들 중 ἐκεῖνος의 경우, 앞서 살펴본 칠십인역 본문들에서는 3인칭 인칭대명사로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 οὗτος가 종종 3인칭 인칭대명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헬라어에서 ἐκεῖνος가 αὐτός를 대신하는 주요 대응어였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칠십인역 헬라어의 고유한 특색이라 말할 수 있다. 한편, “ὁ δέ”의 경우(예. “ὁ δέ+동사(λέγω)” 구문 혹은 “ὁ μὲν... ὁ δέ...” 구문) 히브리어 특정 구문에 따라 기계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 구문의 사용

42) 이 형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형식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1) “οἱ μὲν... οἱ δέ...” 구문: 3:19(여성형); 4:4; 10:28; (2) “οἱ δε...” 구문: 3:30; 6:21; 8:14; 10:20, 25, 34, 36; 12:14, 15; 14:14; 15:25, 26.

43) 이 경우 접속사 καὶ 혹은 δέ의 등장은 히브리어의 ׀의 번역인 경우가 많다. 한편 ‘마카비2서’의 경우 헬라어 자체에도 καὶ의 용법에 강의적 기능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칠십인역 헬라어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구문이 일반 헬라어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지극히 헬라어적 표현이기 때문이다.⁴⁴⁾

그러므로 칠십인역과 칠십인역의 영향을 받은⁴⁵⁾ 문헌들에 등장하는 αὐτός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칠십인역이 마무리 되던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1세기 어간에) αὐτός는 적어도 칠십인역 헬라어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단지 고전적 용법(즉, 특별 용법)으로만 인식된 것이 아니라, 다른 대응어들과 더불어 주로 καὶ αὐτός 형태나 단순히 αὐτός 형태로 3인칭 인칭대명사로 사용되었다.

<주요어>(Keywords)

αὐτός 용법, 헬라어, 칠십인역 헬라어, 인칭대명사, 칠십인역.

the usage of αὐτός, Greek, LXX Greek, personal pronoun, LXX.

(투고 일자: 2013년 1월 28일, 심사 일자: 2013년 2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13년 4월 2일)

44) 만약 그렇다면 원래 헬라어로 기록된 ‘마카비2서’에 등장하는 “ὁ δέ+분사+동사”의 문형이 칠십인역 창세기 이후 등장하는 칠십인역 헬라어 표현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일반 헬라어 용례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마카비2서’에서는 λέγω 동사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더욱 부각된다.

45) 물론, αὐτός가 3인칭 인칭대명사로 사용되는 것을 통해 그것이 칠십인역 헬라어의 흔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셈어로부터의 직접 번역 혹은 코이네 헬라어의 경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십인역 초기 상황과 달리 칠십인역이 성경으로 사용된 사항을 전제한다면 이 용법은 충분히 칠십인역 헬라어의 흔적, 즉 ‘셈투아진탈리즘’의 예로 여길 수 있다.

<참고문헌>(References)

- 강선남 역, 『칠십인역 그리스어 문법』, 의정부: 한님 성서 연구소, 2006.
- 김경래, “구약 성경 본문 전래 과정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1 (1997/8), 145-155.
- 김방한, 『언어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2001.
- 김주한, “신약 성경 헬라어의 역사”, 구자용 외 편집, 『성서의 세계』, 군포: 아람성경원어연구원, 2012, 352-353
- 메이첸, G., 『신약 헬라어』, 조운일 역, 서울: 솔로몬, 2004.
- 하성수, 강지숙, 『그리스어 문법』, 왜관: 분도출판사, 2005.
- Blass, F. and Debrunner, A.,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R. W. Funk ed., and tra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Brown, F. and Driver, S. and Briggs, C.,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coded with Strong's Concordance Numbers*,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Inc., 2000.
- Conybeare, F. C. and Stock, G., *Grammar of Septuagint Greek: with Selected Readings, Vocabulary and Updated Index*, Peabody: Hendrickson, 1988.
- Dana, H. E. and Mantey, J. R., *A Manual Grammar of the Greek NT*, N.p.: Macmillian, 1955.
- Dines, J. M., *The Septuagint*, London; New York: T. & T. Clark, 2004.
- Goldstein, J. A., *II Maccabe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84.
- Goodwin, W. W., *A Greek Grammar*, London: St. Martin's, 1894.
- Jobes, K. H. and Silva, M., *Invitation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Press, 2000.
- Joosten, J., “The Prayer of Azariah (DanLXX 3): Sources and Origin”, J. Cook ed., *Septuagint and Reception*, Leiden: Brill, 2009, 5-16.
- Jung, Chang-Wook, *The Original Language of the Lukan Infancy Narrative*, London; New York: T. & T. Clark, 2004.
- Juöon, P. and Muraoka, T.,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Part Three: Syntax, Paradigms and Indices*, 2 vols., 2 Vol.,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1.
- McCarthy, C., “Text and Versions: The Old Testament”, J. Barton ed., *The Biblical Word*, 2 vols., 1 Vol.,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207-228.
- Moule, C. F. D., *An Idiom Book of NT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 Moulton, J. H. and Turner, N., *A Grammar of NT Greek- III. Syntax*, Edinburgh: T.

& T. Clark, 2005.

- Mounce, D. W., *Basics of Biblical Greek: Grammar*,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9.
- Robertson, A. T., *A Grammar of the Greek 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Broadman, 1934.
- Smyth, H. W. and Messing, G. M., *Greek Gramm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 Thackeray, H. J., *A Grammar of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Septuagint: Vol. 1 Introduction, Orthography and Accid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9.
- Tov, E.,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 Waltke, B. K. and 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Indiana: Eisenbrauns, 1990.
-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5.
- Wevers, J. W., *Notes on the Greek Text of Genesis*, Atlanta: Scholar Press, 1993.
- Young, R. A., *Intermediate New Testament Greek: A Linguistic and Exegetical Approach*, Nashville: Broadman, 1994.
- Zerwick, S. J. M., *Biblical Greek*, S. J. Smith ed.,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3.

<Abstract>

**The Usage of Αὐτός (m.sg.nom.) in LXX Greek:
Analyses of LXX Genesis, Ruth, Ecclesiastes, Isaiah, and 2 Maccabees**

Dr. Joochan Kim
(Chongshin University)

In this article I research the usage of αὐτός (m.sg.nom) in the LXX Greek. Classical Greek grammarians have insisted that the nominative form of αὐτός is not used as a person pronoun. Instead, it either intensifies a noun, which is modified by αὐτός, with the meaning of “oneself” or emphasises the noun with the meaning of “the same”, in the name of the special usage of αὐτός. But, from some passages in the LXX, we sometimes find examples that seem to imply the usage as the pronoun of αὐτός (m.sg.nom). For this phenomenon, grammatical explanation is to be requested. However, well-known LXX Greek grammar books, such as those of F. C. Conybeare and G. Stock (English), H. J. Thackeray (English) and S. -N. Kang (Korean), do not provide sufficient explanation of this phenomenon. They just mention that such a phenomenon is found in a few books in the LXX. Such a situation have sometimes produced difficulties not only in understanding the nature and feature of LXX Greek, but also in investigating the influence of LXX Greek on NT Greek as well as the literary or/and genealogical relationship(s) between the Hebrew *Vorlage* and the LXX. The very reason of this situation is the absence in the study of the usage of αὐτός in the sphere of the LXX Greek. Thus I try to investigate the usage of αὐτός (m.sg.nom.) in the LXX in order to offer hints to solve the above- mentioned difficulties. To achieve this aim, I tried to analyse and compare the usage of αὐτός (m.sg.nom.) and its substitutes in a few selected books in the LXX, i.e. LXX Genesis (literary translation), LXX Ruth and Ecclesiastes (literal translations), LXX Isaiah (free translation), and 2 Maccabees (original, but summarised, Greek work), and revealed that αὐτός (m.sg.nom.) was used as personal pronoun in the third person in the LXX and its occurrence increased in later books of the LXX.